

## 솔직한 사람이 읽은 솔직한 책

프로듀서 주철환이 뽑은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스스로 '재미를 분석·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주철환 프로듀서(44).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손때 묻고 먼지 앉은 책이 아니라, 문화평론가 김지룡의 '따끈따끈한' 신간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명진출판)다. 요즘 읽은 책 가운데 성과 욕망에 대해 '무지무지' 솔직하게 '까발린' 점이 좋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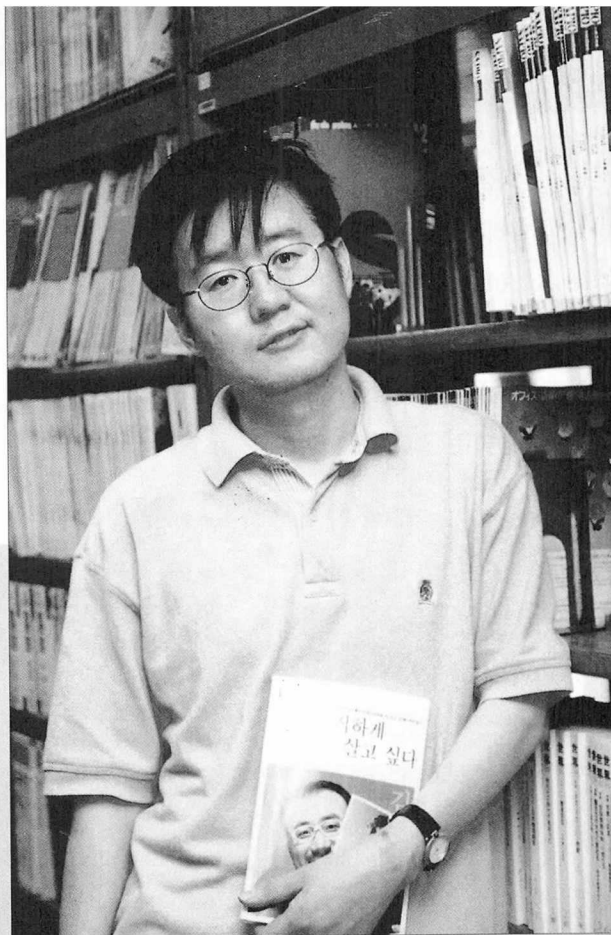
“저는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혹자는 이 책을 선정주의·상업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요. 김지룡의 글은 자기만의 특화된 주제와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좋습니다. 제목도 제 생각과 비슷해요.”

저자가 자필 사인해 이 책을 보내줬다. <TV 속의 TV>에 출연중인 김지룡씨가 자신을 인터뷰하러 왔던 것이 인연. 《사랑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새로운사람들)를 포함 다섯권의 책을 쓴 저자, <테마게임>의 제작자, 인기 강사로서 숨쉴 틈조차 없는 그는 주로 차 안에서 '발췌독'으로 책을 읽는다. 서울의 교통체증과 독서시간이 비례하는 셈이다.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그에게 청년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럭비공처럼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대중의 취향과 욕구에 항상 축수를 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그가 얻은 결론은 '재미가 승화되면 감동이 되지만 타락하면 퇴폐가 된다'는 것.

그에게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기회다. “혼자 생각하면 독단과 아집에 빠지지만 발표하면 피드백이 됩니다.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을 더 가다듬지 않을 수 없어요.”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자'는 좌우명처럼 그에게 책읽기와 글쓰기는 '재미'와 '의미'의 연대전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박천홍 기자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글로써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게임처럼 즐겨요. 하지만 저는 '점잖은 과'에 분류돼 웅감한 글쓰기를 못해요. 사람의 장점만을 읽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편이죠. 이 책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웅감한 글쓰기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 고침 기사

지난호(제262호) <책 곁에서> 코너의 '씨앗을뿌리는사람' 인터뷰 기사가 누락돼 이번호에 다시 실습니다.

## 농부의 마음으로 지혜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첫책 《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가슴 떨리는 사건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나 처음 경험한 사건을 신성한 기억의 공간에 저장해놓는 것은 그것이 불려일으킨 순수의 힘 때문일 것이다. '조심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이 유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장익순 대표도 지난달 1일 첫 책 《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을 펴내 운명의 첫발을 내디뎠다.

“첫 책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이 늘 곁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자는 뜻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를 담은 이 책을 선택했죠.”

대지와 바람의 언어로 빛은 지혜의 언어기에 그 그릇도 달라야 했다. 종이의 질감을 살린 표지장정과 흙을 닮은 종이, 간결하면서 여백의 미를 높인 서체 등이 어우러져 통일된 자연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큰 욕심부리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편집과 디자인 및 제작 전문가들의 혼연일체로

연출의 의도를 잘 살렸다.

“시운전의 결과로서 만족스럽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질 높은 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출판도 결국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와 호흡할 수 있으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겠죠.”

지난 2월 출간한 씨앗을뿌리는사람은 김영사 편집장을 역임한 안희곤 편집장, 영업자로서 입지전적 인물로 손꼽히는 최복현 영업실장 등 7명이 이룬 소 공화국이다. “한 포기 모를 심는 농부처럼 책갈피 한 장마다 지혜의 씨앗을 심는 마음”을 출판사 이름에 담았다.

지난달에만 이 책과 함께 영화시나리오를 완성도 높은 소설로 재구성한 <소설 자귀모>와 '교육학의 데카르트'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의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를 펴내 저력을 보여줬다. 앞으로 마하트마 간디와 달라이 라마의 잠언록, 현대적 관점에서 고전의 의미를 되짚어볼 <동양고전> 등으로 독자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박천홍 기자